

# 현미경적 시선으로 거대서사의 복원 꿈꾼다

국내 주요 출판사들의 올해 기획방향과 상반기 출간예정도서

올해는 월드컵과 선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책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출판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분야에서는 미시사적 관점을 한국사에 적용시킨 책들, 신화와 동양철학 관련 고전·교양서들, 평전, 비소설 분야의 고급화, 어린이 분야의 인문서 기획 등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올해 출판시장은 전반적으로 불안하다. 월드컵과 대선이라는 '불황 요소'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월드컵이 진행되는 5~6월과 대선을 앞둔 11월은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TV 속의 스포츠계와 정치권으로 쏠리면서 독서량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올림픽을 이미 겪어본 출판계는 월드컵에 대비해서 별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월드컵 관련서를 내 봤자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인데, 매스컴에서 워낙 대대적으로 기획물들을 쏟아낼 테니 굳이 책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 대선 특수 노린 책들 연초부터 쏟아져

대선을 인식한 듯한 책들은 벌써부터 머리를 내밀고 있다. '후보권' 정치가들의 철학을 대중적으로 피력한 책들로 최근 《노무현이 만난 링컨》(노무현, 학교재), 《유종근의 신국가론》(유종근, 한국선진화연구회) 등이 나왔고, 한 네티즌 저자가 인터넷에서 연재한 이회창 인물비평 1백회분도 《이회창 대통령은 없다》(이태준, 월간말)로 묶여 나왔다. 들녘에서 준비중인 《이미지 삼국지》(이하 언급되는 제목은 가제)는 대선후보들을 주 독자층으로 겨냥한 책으로, 《삼국지》 인물들을 모델로 리더들의 이미지를 형성할 대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담았다.

그밖에 출판사들은 중요한 기획물들을 연초와 월드컵이 끝난 하반기 초입에 집중시켜 불황을 비껴갈 계획이다.

기획분야에서 국내 주요 출판사들의 움직임을 주목해보면, 사실 큰 변화는 없다. 기획이 1년 단위로 바뀔 정도로 호흡이 짧지 않기 때문이다. 주목하고 있는 주제들은 역시 중국과 동양학, 신화다.

역사쪽은 미시사적 관점을 한국사에 적용한 책들이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푸른역사에서 준비중인 《황진이》의 경우 '기생

으로서가 아니라 개경의 지식인 구도 속에서 '지식인' 황진이가 맡았던 역할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예정이어서 흥미를 끈다. 창작과 비평사의 《고려시대 개경 연구》도 개경을 테마로 여러 관점에서 접근한 역사물이다. 일상품목의 역사를 소개해온 지호는 《톨립 마니아》라는 독특한 책을 기획중이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투기 대상이 됐던 톨립 뿌리가 주요 애깃거리인데, 국민의 35%가 톨립 때문에 파산했고, 이를 논픽션으로 쫓았다니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이다. 개마고원의 경우 '변형된 미시사'라 할 수 있는 〈~로 읽는 한국사회문화사〉시리즈를 준비중이다. 광고, 영화, 패션, 만화의 변천을 통해 한국사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보는 것이 목적이다.

창작과비평사의 《요설 일본역사》와 《일본이란 무엇인가》도 주목할 만한 역사번역물이다. 전자는 지난해 7월 일본에서 출간된 것으로 문화사와 민중사관이 혼합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일본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훑고 있다. 출판사측은 일본사 교과서로 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자는 소수민족의 시각, 즉 변방의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있어 흥미롭다.

신예출판사 휴머니스트는 '통사' 영역에서 새로운 기획물을 준비중이다. 이미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중역사물 저자 이덕일씨가 한국사 전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담은 《비주얼 한국사》를 집필중이다.

## 《희랍 신화》 비롯한 양서 번역 활발할 것

신화 분야는 궁리에서 기획하고 있는 두권의 책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로 한국인의 죽음을 성찰한 김열규 교수가 내친 김에 쉽게 풀어쓴 에세이 형식으로 《한국의 신화》도 집필중이다. 또 신화학의 정전 칼 케르니의 《희랍 신화(전2권)》도 번역하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 이갑수 대표는 토마스 불빈치를 위시해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그리스·로마 신화서들은 대부분 청소년용으로 기획된 것들이라 그 깊이가 부족했다며 깊이와 흥미를 두루 갖춘 책들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궁리의 기획물 말고도 독자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던 많은 이론서들이 이미 제작단계에 들어가 있다. 연초에 선보일 책들을 열거해보면 민음사의 《정치적 무의식》(프레드릭 제임슨)과 《추측과 논박》(칼 포퍼)이 우선 언급될 만하다. 제임슨의 저서는 문학·문화 연구에 인용되는 빈도로 따져볼 때 이제야 번역된다는 사실의 의아할 정도로, 포퍼의 저작도 역사주의 비판가로서가 아니라 '과학 철학자'로서 포퍼의 입론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초기 저작이다. 백의가 준비하고 있는 마르크스의 《독일 이데올로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기획물이다. 지금까지 두레를 비롯해 몇몇 출판사에서 이 저작을 소개한 바 있지만 그것은 전체의 1/3 정도에 불과한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만 발췌 번역했던 것이었다. 이 유명한 마르크스의 초기저작 완역판은 올 하반기쯤 만나볼 수 있을 듯하다. 백의는 그 뒤를 이어 앙리 르페브르의 《현대 도시공간의 탄생》도 준비 중이다. 열화당에서는 독일 미술사학자 안드레아스 에카르트와 스투어트 컬링이 1890년대에 각각 저술한 《조선미술사》와 《한국의 놀이》를 펴낼 예정이다. 한길사의 <한길그레이트북스> 시리즈에는 한나 아렌트의 대표작 《전체주의의 기원》이 추가된다.

열화당에서는 《단원 김홍도》에 이어 《혜원 신윤복》을 연초에 선보일 예정인데, 신윤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로는 거의 처음일 것이다. 또 동양화에 대한 1백가지 의문점을 정리한 《동양화 이야기》도 미술사 전공 교수와 고교교사의 공저로 출간된다.

#### 과학대중화 가속화 및 어린이책 인문서 개척

평전·전기류도 지난해의 인기여세를 몰아갈 전망이다. 푸른숲의 《마론 브란도》는 평전의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간디 사후의 주요 사건과 흐름까지 담은 자서전 《마하트마 간디》도 한길사에서 준비 중이다. 열화당은 내년 3월 《근원 김용준 전집 5》를 펴내 근대 예술인의 삶을 일단락 지을 예정이며 평전 《에밀 놀데》도 준비 중이다.

문학 분야에서 굵직한 기획물로는 《최인호 중단편전집(전5권)》(문학동네)과 《오규원 시전집(전2권)》(문학과지성사)을 들 수 있을 듯하다. 양측 모두 순수하게 작품만 실었다. 문학과지성사에서 의욕적으로 펴내고 있는 <대산세계문학총서>는 연초에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로비치 쿨자로프의 대표작과 크리스토퍼 말로의 희곡집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학동네에서는 유려한 에세이스트 김화영 교수의 《예술기행집》과 배병삼 교수의 《한글세대가 본 논어》에 공을 들이고 있어 기대된다.

과학 분야에서도 큰 기획물을 준비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 우선 지호는 본격적인 과학물 대중화에 진출해 과학출판사로서의 명성

을 굳힐 예정이다. 과학 전공 소장학자들이 카테고리별로 저술한 책을 페이지 퍼백 형태의 시리즈물로 만들어 선보일 예정이다. 그 외에 이블린의 《유전자》도 거의 번역이 끝났는데, 인간 배아복제가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담고 있다

니 기대된다. 궁리는

<과학 개념> 시리즈를 준비 중이다. 미국

에서 청소년용으로 기획된 시리즈물로 카테고리별로 과학의 중요한 개념들을 풀어쓰고 있다. 《기후의 미래》는 '도표만 많은' 기존 기후관련서의 틀을 깨고 지구의 기후변화를 역사에세이 형식으로 쉽게 이야기한다. 김영사의 경우 좀 특이하게 '공학'의 대중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현재 각 분야 전문가들이 총 10권의 시리즈물을 준비중이고 연초에 선보일 예정이다.

어린이책 분야는 올 하반기에 활발했던 정보그림책과 픽션과 논픽션을 가미한 기획물들이 계속 나올 예정이다. 보리는 총론으로 선보였던 도감류를 각론화해 펴낼 계획이다. 또 아이들이 직접 쓰시와 백창우씨가 작곡한 노래를 결합시킨 책을 총 6종 준비 중이다. 아이세움은 올해 인문 분야에 기획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동안 잡다한 지식을 전해주는 책들은 많았지만 이를 한 줄로 꿰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책은 없었다는 문제의식으로 <아이세움 배움터> 시리즈를 펴내 초등 고학년층을 공략할 계획이다. 여성의 인권을 주제로 한 <여성인물> 시리즈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림책 전문 출판사 보림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5~8세 아이들에게 그림보다는 텍스트를 읽게 하는 책을 기획 중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정보그림책에 치중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우리의 역사현장을 실감할 수 있는 창작그림책에 비중을 두기로 했다. '국학' 분야에서 초등고학년의 인문교양서를 준비한다는 기획은 아이세움 측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경제·경영서 분야는 뛰어난 리더들의 경영전략과 경영혁신 사례를 번역소개하는 책들이 내년에도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김영사는 국내 경제·경영서에 번역물이 난무하는 점을 인식하고 내년 부터는 이 분야에 국내 필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민 기자

